

다른 곳

Elsewhere

2020
8.28-10.25

Cho
Jaiyoung

Kim
Donghee

Kim
Heecheon

Noh
Sangho

Son
Kwangju

김동희

김희천

노상호

손광주

조재영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던지는 행위는 긴급한 의제들로 가득 찬 ‘지금, 여기’의 치열한 현장을 외면하는 일종의 도피적인 행위일까? 그것은 이곳의 현실과는 무관한 저 너머의 세계를 향한 상상의 시선일 뿐일까? 현실은 주로 수많은 난관들과 경계로 가로막힌 곳이기에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무수한 영웅담과 혁명사, 예술적인 비전들은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해 왔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치의 영역이 소환되고 도래하기를 바라는 믿음이나 행복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우리를 광대하고 낯선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현실의 바깥, 존재하지 않는 ‘노웨어’로서의 유토피아로 귀결되곤 했다.

그런데 동시대의 현실은 그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매순간 변모하고 확장하면서 우리 인식의 경계를 넘나든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한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때로는 야만이라 부르는 지리적으로 ‘다른 곳’을 소환하고, 근대사회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본질들은 세계 자체를 파편화 한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전제상의 한 귀퉁이, 수많은 싱크 홀을 감춘 매끈한 표면 위에 조심스레 발을 붙이며 살 뿐이다. 그런가 하면, 기술적 환경이 구현하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은 현실계의 평행세계로 자리매김하면서 ‘동기화’라는 통로를 통해 수시로 현실과 접속하며 현실을 부풀려 간다.

현실 자체가 서로 공존 불가능한 여러 공간들이 겹쳐진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는 지금, ‘다른 곳’을 향한 시선은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를 향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뒤집는다’는 추리 소설가 아리스가와 아리스의 전략처럼, 현실의 틈을 파고 들어가고 가리워진 현실을 드러내는 일에 속할 것이다. 우리가 ‘현실’이라 불려온 것들이 실은 단순한 몽타주였기에, 오늘날 미술의 도전은 ‘이 몽타주를 재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니콜라 부리오의 주장처럼 현대미술의 실천은 무수히 ‘다른 곳’에 대한 탐험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는 회화, 조각, 비디오, 설치 등 매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다섯 명의 동시대 작가들을 불러 모은다. ‘다른 곳’이란 키워드를 출발점으로 다섯 작가는 현실의 특이한 지점을 포착하거나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하는가 하면, 현실과 역사를 가로지르며 현재 시제를 통찰하고 팬데믹과 공존하게 될 불확정의 시대를 바라본다. ‘다른 곳’을 향한 시선은 ‘지금, 여기’를 외면하기 보다는 현실이라는 폐쇄적인 지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묻고 규정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회로를 벗어나길 꿈꾸는

Would gazing ‘elsewhere’ be an aversive act to avoid the hectic world of ‘now and here’ filled up with urgent agenda? Would it be an imaginary gazing at the world beyond w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ality here? Since the reality is usually blocked with hurdles and boundaries, tales of heroes and history of revolutions, and artistic visions amid the long history have sought after ways to transcend the reality. Yearning for happiness and freedom, as well as desire for the advent of unrealized domains of politics endless guide us ‘elsewhere’ that is vast and unfamiliar. It used to boil down to a utopia as ‘nowhere’ outside the reality.

Yet, the reality of the contemporary world crisscrosses the boundary of our perception through constant change and expansion to the point where it is meaningless to distinguish the inside from the outside. A ‘diaspora’ transcending national boundaries geographically takes us ‘elsewhere’ we have never been too, while segments known to be the essence of the modern society fragment the world itself. We simply live by carefully tiptoeing on the sleek surface where so many sink holes are hidden or one corner of the unpredictable. While the new time and space realized by the tech environment positions itself as a parallel world in the real world, it keeps logging into the reality and inflates it through a channel of ‘synchronization.’

At a time when a heterotopia is formed with overlapping non-coexisting spaces, a view towards ‘elsewhere’ could be towards ‘now and here.’ Just like the strategy of mystery writer Alice Arisugawa of ‘overturning the reality instead of escaping from it’, it would be to penetrate into a crack in the reality and reveal its hidden aspects. What we have called the ‘reality’ has been a simple montage, the aesthetic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 resides in ‘recomposing that montage’ according to Nicolas Bourriaud. Thus, the practice of contemporary art is to be explored on ‘elsewhere.’

This exhibition is a platform of five contemporary artists exploring possibilities of such media as painting, sculpture, video and installation. While the five artists either grasp a peculiar point in the reality starting from the keyword ‘elsewhere’ or explore a domain of unconsciousness, they crisscross the reality and the history to look into the current tense, and view the era of uncertainties to coexist with the pandemic. The view towards ‘elsewhere’ is to continuously ask and define one’s position in a closed topography of the reality, and reflect an attitude of dreaming to stay away from the unavoidable circuit. Contemporary artists as individuals are mesmerized by a locked room, or create a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개별자로서 현대미술가들은 밀실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의 장소 혹은 새롭거나 불가능한 ‘다른 곳’을 창안하면서 각자가 직면한 현실에 의문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탈주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강인하고 매끈한 외관을 키워 나가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폐허와 무질서를 만든다. 그 양면을 돌아보는 김동희는 학창시절부터 도시공간의 틈새를 발견하고 일시적으로나마 개입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는데 그것은 거대한 도시의 어느 한 귀퉁이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져가는 세대의 공간 점유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 그는 학창시절 교내의 방치된 공간에 투입해 무려 3년간이나 그곳을 작업실 또는 전시공간으로 전유했는가 하면, 자주 다니던 동네의 주차장, 공터, 계단 등의 빈 공간에 가설 무대를 만들고 전시, 상영회, 퍼포먼스, 연주회 등을 펼치기도 했다. 그가 지속해 온 프로젝트는 관계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도시에 뿌리를 내려 ‘인류학적인 장소’를 복원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도시지형의 변화에 일시적으로 개입해서 잠시 부유하는 공간, ‘다른 곳’을 만들어 내리는 욕구와 연결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미술제도의 바깥에 스스로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자기조직화’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미술관의 화이트 큐브 안으로 이행해 간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간 자체의 특성을 무효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화이트 큐브 내에서 그는 미술가이자 전시 디자이너, 심지어 시공업자의 역할 사이를 오가며 공간에 존재감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방법은 아마도 푸코가 말한 거울의 ‘재귀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일텐데 그것은 부재를 전제로 한 화이트 큐브를 거울이라는 상징적 중간 경험을 경로 삼아 전도와 반매치, 바깥 장소로의 이행 등을 통해 헤테로토피아로 전환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공간 자체가 작품이 된 3 볼륨(2017)의 경우, 구글의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 값으로 구현된 2차원 화상을 실제의 물리적 부피로 재현한 것이었다. 전시장의 배경으로만 존재했던 벽과 바닥이 고밀도의 화이트로 뒤덮인 채 양감을 가진 실제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아들리에 에르메스의 중정에 놓인 시퀀스 타입: 3(2020)는 여전히 빈 공간에 대한 작가의 개입을 드러낸다. 다만 과거의 구조물들이 매번 폐기되고 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른 두 조각으로 조립하여 향후 재생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도로 제작되었다. 건축적 파빌리온이자 독립적 조형물인 이번 작업은 작가가 평소 눈여겨 보았던 장소의 특성, 즉 건물로 둘러싸여 우물같이 깊은 정사각형 중정이 극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하늘에 주목했다. ‘시퀀스 타입’이라는 일련의 공간 경험 프로젝트와 연관하여 벽을 끼고 걷는 좁은 우회로나 허리를 굽혀

place of the past or ‘elsewhere’ that is new or impossible to achieve, raising questions on their reality and experimenting with the possibilities of running away from it.

A metropolis of Seoul builds up a strong and sleek appearance through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while bringing about numerous ruins and disorders. Kim Donghee has tried works to discover a crack in urban spaces and intervene in it, albeit temporarily, since he was a student, which reflect the desire to dominate a space of a generation that cannot own even a corner in a large city. He cracked into a discarded space on campus, and appropriated it into his studio/exhibition space for three years. He also made a makeshift stage in an empty space in his neighborhood parking space, an empty lot and stairs, and showed an exhibition, a video show, a performance and a concert. The commonality of his projects is not related to an intention to restore ‘anthropological places’ rooted in a modern city which loses out on relativity, historicity and identity: rather, it is aligned with a desire to create ‘elsewhere’, a temporarily floating space by transiently intervening in changes in the urban topography. Moreover, it was a way of ‘self-organization’ to create one’s own space outside the artistic institutions.

Thus, it is truly intriguing that he brought his project into the white cube of an art space. He would have to impose a spatial presence by multitasking as an artist, exhibition designer and even constructor in a white cube whose premise is to nullify the features of a space per se. It would be to reflect the ‘recursive effect’ of a mirror mentioned by Michel Foucault, being converted into a heterotopia through counter-arrangement and movement into a place outside via the white cube. For 3 Volume (2017) he used Google’s sketch-up program of the two-dimensional pictorial image represented in data values into an actual physical volume. It was a work where the walls and floors, the background in the gallery reveal their presence with a volume by being covering with high-density white.

Sequence Type: 3 (2020) placed in the courtyard of Atelier Hermès still exudes the artist’s intervention into an empty space. It was produced as his first attempt to estimate the possibilities of regeneration by assembling the structures into 32 pieces as an alternative to their demolition. This work as an architectural pavilion and an independent sculpture paid attention to site specificity, he was keen on the sky where a square courtyard as deep as a pond surrounded by the building is dramatically opened. He emphasized the sequence where the audience’s visual perception differs depending on their movement by walking around a narrow bypass, or an entrance one has to enter by bowing, in line with the spatial experience project of ‘sequence type.’ The expanded sky is embraced through the mirror in the inside space which is opened towards the sky in the form of an inverted quadrangular pyramid.

진입해야 하는 출입구를 장치해서 이동에 따라 관객의 시지각이 달라지는 시퀀스를 강조했다. 역사각뿔의 형태로 하늘을 향해 개방된 내부엔 거울을 통해 확장된 하늘이 수용되는 것이다.

이 독립된 조형물이 의외의 장소특정성을 포착하는 것은 건물 내외부의 스킨을 섬세하게 본떠 조합한 때문이다. 중정의 형태를 반복하는 동심 정사각형은 물론, 에르메스 매장 실내의 도장법(완벽한 화이트가 아니라 미묘한 White RAL 9010)과 가구와 벽면 모서리의 곡선(이번 전시의 공간연출을 맡은 김동희는 김희천의 밀실 구조물 모서리도 곡선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무늬목의 패턴까지 각종 인테리어 요소를 외부로 끌어낸 것이다. 그 결과, 야외로 나온 명품 하우스는 대중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임시적인 휴식의 장소로 치환된다.

조재영은 조각의 내부가 물질로 가득 차 있으리라는 고정관념을 의심해 온 작가다. 질량과 물성, 또는 영구성이라는 암묵적인 특권을 가진 보이지 않는 대상 대신, 그것에 복속된 것이라 여겨지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껍질’에 주목해왔다.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거라 여겨져 온 표피를 내부가 세계와 만나는 경계이자 우리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으로서 새롭게 의미부여를 한 것이다. 그가 표피이자 조각의 재료로 사용하는 종이는 1mm 두께로까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습도와 외부의 압력, 중력에 취약해 수시로 상처받고 휘어지지만 내부와 외부로 긴장감 속에서 조율하며 정상과 소멸 사이의 불안한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이어 붙이고 폐기되는 예기치 못한 과정이 개입되면서 형태는 자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몬스터’의 형상으로 나아간다.

표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네거티브 공간으로 이행한다. 주어진 부피로서의 공간은 과연 존재하는 곳인가? 마치 언어의 대전제처럼 선형적인 것은 아닌가? 공간에 대한 의심은 추상적인 조형개념을 넘어 일상의 공간구조와 인식체계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백화점과 병원, 학교, 지하철 등 소위 공공의 편의를 위해 제안된 공간의 용도와 내부의 동선은 그 목적이 선명할수록 사용자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작가는 일상 공간으로부터 분절된 모티브를 가져와 유닛을 만들고 레고 블럭을 끼워 맞추듯 재배치한 뒤,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부피를 평면으로 치환하면서 본래 공간의 용도와는 무관한 *Alice's Room*을 구현한 바 있다. 현실의 어떤 공간을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찾을 수 없는 그곳은 도달할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작동한다.

이번 전시에서 조재영은 종이 구조물과 철재 프레임이 구현하는 거대한 미로 공간을 제안한다. 빌딩숲을 연상시키는 복잡하게 조직된 구조물들이 위 아래가 뒤집힌 채로 또는 지상에 위태롭게

This independent sculpture grasps an unusual site-specificity because of the combination after subtly emulating the inner and outer skin of the building. Various interior elements—not only the concentric square repeating the form of a courtyard but also the interior painting (not a perfect white but a subtle White RAL 9010), the curve line of the wall corners of the Hermès stores, and the patterns of timber—have been brought to the outside. As a result, the house outside is in action as a platform for the public, and is substituted into a temporary resting place.

Meanwhile, Cho Jaiyoung is an artist that questioned the stereotype that a sculpture must be full of materials. She has focused not on invisible objects with implicit privileges—mass, materiality or permanence—but on the clearly visible ‘cover’ yet seeming to subjugate to them. She attached new meanings to the surface that has been regarded to have no meanings of existence by itself as the boundary of the inner and the outer worlds, and as the basis of our perception of objects. The paper she uses as the skin and the material for her sculpture could be as sensitive as down to the thickness of 1mm, so is often damaged and twisted due to humidity, outer pressure and gravity, yet finetun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amid tension to create a space of anxiety between normalcy and disappearance. With the intervention of an unexpected process of attaching and discarding, the form is developed into the image of a ‘monster’ through voluntary growth.

Her interest in the surface moves into a negative space naturally. Does the space as a given volume exist in reality? Isn't it a priori premise of a language? Doubts about a space raise a question on the daily spatial structure and perceptive system beyond abstract sculptural notions. It is because the clearer the usage of a space suggested to convenience the public—department stores, hospitals, schools and subways, etc.—and its inside movement floor is in its purpose, the more likely it is to unconsciously dominate the actions of its users. Cho created *Alice's Room* being irrelevant with its original space usage by producing units with motifs fragmented from a daily space, substituting the heavy with the light, and a volume with a plane. The place resembling a space in the reality, whose exact same place cannot be found, serves as ‘elsewhere’ which one cannot reach.

Cho comes up with a massive labyrinth-like space represented by paper structures and steel frames. Structures that are complicatedly organized and reminiscent of a forest of buildings block the audience's traffic and view with the reversed top and down, or positioning themselves in peril on the ground. The state of no distinction of structures generates the repetition of the familiar and same. We drift away within and experience the loss of a geographical sense in a modern city. By passing by a temporary and arbitrary labyrinth as an open space—seemingly

자리잡으며 관객의 동선과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다. 개개의 차이가 없는 구조물들의 무구분의 상태는 낮익고 동일한 것들의 반복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표류하면서 현대도시에서 느끼는 지리감각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닫힌 듯하지만 실은 열린 공간으로서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미로를 경유하면서 우리는 미끄러지듯 다른 공간으로 환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동시대의 ‘비-장소(non-place)’에서의 경험을 일깨우며 그 어느 곳도 아니지만 분명 존재하는 헤테로토피아를 상상하게 된다.

손광주는 극, 실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이면서 최근에는 사적 기억이 내재된 에세이 형식의 비디오로 미술현장으로도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작가다. 그는 아방가르드 영화의 두 계보, 즉 기존 영화 문법을 해체해서 내러티브를 정치적으로 실험하는 장-뤽 고다르식의 아방가르드와, 영화를 시각예술의 한 장르로 이해하며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매체 실험에 집중하는 마이클 스노우 류의 미국식 아방가르드 전통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면서 충돌과 종합을 시도해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스토리텔링에도 능한 그는 극영화 연출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소리와 이미지가 언어와 맞물리면서도 어긋나는 영화 문법의 정치적인 실험을 통해 영상매체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배제된 실험영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작가의 의식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만큼 내러티브는 유령처럼 스며져 나온다고 믿는 그는 초기의 언어적 장치를 점차 소거하고 이미지와 사운드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자신에게 내재된 경험과 역사의식을 영상 안에 녹여내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2005년 여의도에서 발견된 지하철역을 모티브로 한 거울 없는 방(2018)은 대한뉴스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기계적인 사운드와 이미지로 가득 채웠다. 정보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공간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영상 속에서 낯선 공간은 역사의 공백을 채워 넣기를 강요받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무고한 정치범으로 의인화된다. 그 이면엔 군사정권기에 유년기를 보내야 했던 작가의 기억과 학습된 불안이 내재한다.

출품작 가위 바위 보(2020)는 전시 ‘다른 곳’을 준비하는 동안 작가가 마주한 현실적인 조건을 출발점으로 한다. 작가는 배우들을 출연시키되 이미지와 사운드로만 구성된 풍경에세이를 구상했는데 지방에 위치한 창작촌에 입주하게 되면서 그곳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조우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놀이 속에서 공평한 규칙으로 활용하는 ‘가위 바위 보’가 실은 작가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행했던 선택과 경쟁의 행위와 흡사한 것을 발견한다. 심지어 각각의 무기를 상쇄시키는 또다른 무기의

closed—we go through the experience of making a transit into another space as if to glide over. This reminds one of an experience in a ‘non-place’ and makes one dream of a heterotopia that is nowhere, yet being existent somewhere.

Son Kwangju is a film director of various forms of films including drama, experiment and documentary , and a video artist in the form of an essay with her personal memory. She has been acclaimed for trying collision and combination of the two pedigrees of avant-garde films: Jean-Luc Godard's of politically experimenting narratives by deconstructing the existing film grammar; and the American-style avant-garde traditions of Michael Snow's of concentrating on experimenting with media through images and sounds. Highly acclaimed for her feature film directing thanks to her outstanding storytelling, she has stretched out the possibilities of the media art through experimentation of the film grammar where sounds and images collide with, yet deviate from the language.

Believing that a narrative is smudged out like a ghost because it is made out of an artist's awareness—despite being an experimental film with an excluded story from the beginning—, she strives to embrace her experiences and thoughts of the history into videos, while gradually muting the early-day linguistic instrumentation and focusing more on the roles of images and sounds. For instance, A Room without Mirrors (2018) with a motif from an underground bunker discovered in Yeouido, Seoul, in 2005, is filled up with mechanical sounds and images brought from the archive of Daehan News. An unfamiliar space in the video failing to offer any clues on the unknown space despite the overflowing information is personified as an innocent political prisoner with amnesia being forced to fill in a historical vacuum. Behind it lie her memory and learned anxiety of the artist who spent her childhood in the military regime in Korea.

Her exhibit Rock Scissors Paper (2020) starts from her realistic condition as she prepared for this exhibition ‘Elsewhere.’ She at first conjured up a landscape essay consisting of only images and sounds with actors appearing in, but as she resided in an art village in a local region, she happened to mee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 She discovered that ‘rock scissors paper’ used as a fair rule in play is similar with the act of choice and competition she took every moment in her life. As it could be another competition of weapons to offset each weapon, ‘rock scissors paper’ embodies an violence-based absurdity, instead of a system for fairness. A ghastly voice from the history, saying, “The revolution failed” is haunting in a child's voice.

This work composed of mainly shooting and editing, being independent from the language, based on collected images and sounds nonlinearly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경합이라 할 수 있는 ‘가위 바위 보’는 공평을 위한 시스템이기 앞서 폭력을 내재한 부조리를 담고 있다. 어린이의 목소리로 “혁명은 실패”와 같은 역사 속 유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집된 이미지와 사운드를 바탕으로 언어로부터 독립한 채 촬영과 편집으로만 구성된 이 작품은 작가의 기억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어린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를 비선형적으로 오간다. 오르골로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소아곡’을 배경음악으로 안전과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통해 현실과 기억을 이어 붙이는 것이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이 작업에는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장 쾅 고다르의 여기 그리고 다른 곳(Here and Elsewhere)의 양극단의 두 세계와 트린 T. 민하의 여기 안에서의 다른 곳(Elsewhere Within Here)의 경계 넘기의 세계관이 무심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가 노상호의 작업은 그 스스로 ‘가벼운 그림’이라 평가할 만큼 매일 손쉽게 그려져 방대한 양으로 축적된 것이지만 SNS를 매개로 한 사적/공적 공간의 혼성이나 이미지 소비의 문제 등 동시대의 현상을 면밀하게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화 매체의 재현과 평면의 문제를 재조명한다. 그는 인터넷이나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최근엔 천 개가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타인의 일상 또는 그들이 수집한 이미지들을 채집한 뒤, 이를 근거로 매일 한 장 분량의 그림을 그린다. 인스타그램 화면에 정사각형의 이미지로 환원된 누군가의 삶은 자발적으로 노출되어 다종의 응시의 대상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멋진 순간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부분 관찰자의 일상과는 무관한 ‘다른 곳’에서 전개된 삶의 모습이다.

손쉽게 수집된 이미지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재조합되고 다시 한덩어리로 프린트되는 과정에서 시간간의 혼돈으로 나아간다. 결코 전체를 알 수 없는 분절된 이미지들의 짜집기는 서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어긋나기도 하는 배치로서, 중첩될 수 없는 장소들이 겹쳐진 헤테로토피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프린트 위에 먹지를 대고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행위는 이미지 복제의 가장 원초적인 메커니즘으로 작가가 받은 판화 교육과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이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반영해 선을 생략하거나 추가함으로써 복제의 목표와 멀어진다. 더구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있어 지극히 유동적인 수채나 유채를 채택한 것은 마치 위홀이 형태의 윤곽선을 지우고 얼룩을 남긴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비균질적인 세계로 나아가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대형의 화면으로 구현된 작품작에서 스캔해 두었던 수많은 이미지들은 서로 연관되고 충돌하며 하나 혹은 다수의 세계를 구성한다. 전작들이 이미지의 집합만으로 구성되었다면 ‘그레이트채북’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작품작은 사이 공간을 둔

the worlds of children and adults in line with the artist’s memory and stream of consciousness. The reality and memories are patched together by lights off and circling rides against the Mozart’s ‘A Little Night Music’ from a music box. This work gazing at ‘elsewhere’ must have been unknowing reflective of the two worlds of opposite ends in Here and Elsewhere of Jean-Luc Godard she is personally interested in, and the boundary-crossing view in Elsewhere Within Here of Trinh T. Minh-ha.

A huge amount of works of painter Noh Sangho have been accumulated for having been casually and lightly drawn every day. Yet, they thoroughly utilize the contemporary phenomena such as social media-based hybridization of private/public spaces and consumption of images, while shedding light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medium of painting and two-dimensionality. He collects images collected by others as well as their daily life through over a thousand Instagram accounts based on which, he paints a piece of painting a day. Somebody’s life put into an image of a square on the screen of Instagram is voluntarily exposed, showing an extraordinary moment in life to the point of being the target of gazing by a multitude of people. It is a facet of life developed ‘elsewhere’ which is irrelevant to the daily life of observers.

Easily collected images are re-combined regardless of their order and printed as a single chunk, during which they move towards a temporal chaos. Pasting fragmented images whose entirety is unidentifiable is mutually related, yet disorganized in their arrangement where places that cannot be overlapped are developed into heterotopia-like facets. The act of painting along the image over carbon paper on the printed one—as the most primitive mechanism of image reproduction—would be not different from the printmaking education he received. As he omits or adds lines by reflecting his random thoughts, thus distancing himself from the goal of copying. Furthermore, adopting utterly fluid watercolor or oil painting in representing images could be described as an act of intentionally advancing into a heterogeneous world—just like Andy Warhol remaining smudges by blotted lines.

Many images he scanned from exhibits on large canvases are related and crashing, forming a single or multiple worlds. While his prior works consisted of only the conjugation of images, THE GREAT CHAPBOOK3—ELSEWHERE unfolds in many places with many spaces of interval. The emergence of many scenes of lava, fire, polluted water and explosion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reality and the fantasy by being reminiscent of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of Hieronymus Bosch and watercolor paintings of Henry Darger reflects the frequency of disaster images recently shown on social media. The actual work table with rollers proves that the entire composition of the canvas is meaningless as the

많은 장소들로 전개된다.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쾌락의 정원이나 헨리 다거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며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용암과 불, 오염된 물, 폭발 장면 등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최근 SNS에 드러난 재난 이미지의 빈도를 반영한다. 롤러가 달린 실제 작업대는 이 작가에게 부분만이 중요할 뿐 화면의 전체 구도가 별 의미가 없음을 증거하고, 패치워크로 완성된 패브릭 작업은 이미지 이어 붙이기를 물성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처음 시도하는 무채색의 회화는 작가에게 ‘다른 곳’을 향한 모험과도 같은 것인데 액정 화면 속의 오색찬란한 이미지가 컬러를 잃었을 때, 이미지의 얇은 깊이가 물감의 두께와 경쟁하게 되는, 그리하여 이미지 다루기로부터 회화의 영역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면모를 보여준다.

김희천은 기술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인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예의 주시해 온 작가다. 인터넷, 3D, GPS, VR 등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확장에 따라 세계 전체가 디지털 데이터로 매개되는 듯한 이 세계에서, 실제로 증강된 시공간의 감각을 체감하며 성장한 세대의 작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새롭게 탄생한 시공간을 호기심으로 탐험하는 순진한 미래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기 보다는 두 현실 사이에서의 존재 방식을 고민하고 두 곳이 뒤섞이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주목하는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다. 개인정보가 우리의 인격적 아이덴티티마저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삭제할 수 없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이 현실을 강력히 지배하는 상황이나, 가상 시뮬레이션에의 몰입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능력이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상황 등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는 3D나 페이스 스왑 같은 AR 기술을 사용할 때조차도 고도의 매끄러움 대신 현실의 불균질을 닮은 거친 단면을 선택함으로써 두 세계가 더 잘 드러나는 듯한 생생함을 확보한다.

지난 몇 달간 인류에게 닥친 상상을 초월한 COVID-19 (코로나 감염증) 사태는 이 세계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예 ‘다른 곳’이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게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아직 아무도 단언하지 못한다. 김희천 또한 자발적인 침거 기간 동안 휴교령에 대처하는 학생들의 ‘스터디 타임랩스’ 동영상을 보면서 생활에 기이하게 스며든 기술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르게 작동시키는지 변화를 감지할 뿐이다. 그는 위기를 느낄 뿐, 그 전체상을 파악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현 상태를 밀실살인의 사건 현장으로 추적해 보려 시도한다. 소설가 A가 집필 중인 미완성의 추리물 속에서 개념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밀실 속의 이 세계는 처참한 시체로 죽어 있을지 모른다.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1841)이후 트릭과 공포로 꾸준히 사랑받는 밀실 미스터리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반전이기에 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저택이

parts alone are important, and the fabric work completed with a patchwork is to reveal the image patchwork with materiality. His first painting with achromatic colors is analogous to an adventure to ‘elsewhere’ for him, showing an aspect where colorful images in the liquid crystal screen lose colors, they are to compete with the thin depth of images and the thickness of paints, thus taking a closer step to the domain of painting from dealing with images.

Kim Heecheon has been keen on how changes in the tech environment change our lives and cognition. It is because he is of a generation that grew up by experiencing the augmented tempo-spatial sense in this reality where the entire world seems to be mediated by digital data amid the expansion of digital interfaces including the Internet, 3D, GPS and VR. Yet, instead of revealing himself as a naïve futurist that curiously explores the newly created time and space, he takes a stance of a watcher that pays attention to fallacies occurring in points of the two places being mixed up and colliding, while mulling over the modes of existence between the two realities. Acute observation has been made on the strong dominance of un-erasable virtual online spaces over the reality in a reality w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defines our human identity, and an ability to distinguish the reality and non-reality put to a greater risk due to immersion into virtual simulation. Even when using AR technologies such as 3D and face swap, he secures liveliness as if the two worlds would be well attached together by opting for a rough surface emulating the heterogeneity of the reality instead of the advanced sleekness.

The unimaginably severe COVID-19 pandemic heralds that this world would be ‘elsewhere’ without going back to the previous state, but nobody can be certain about what of place it would be. Kim simply sensed the changes on how differently the technologies paradoxically penetrating into people’s life manipulates this world by watching students’ videos of ‘study time lapse’ during their school closure. He made an attempt to track the current puzzling state whose entirety in image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incident site of a murder in a closed room, merely sensing the crisis. This world in a conceptually locked room in an incomplete mystery being written by novelist A might be an appalling dead body.

Locked room mysteries steadily loved by readers with tricks and fear since the release of The Murder in the Rue Morgue (1841) by Edgar Allan Poe offer an unexpected twist in a safe space, so a murder site is often a house where many gather together. Kim as an architecture major intersects the gallery, the café and the courtyard connecting the two at Atelier Hermès with a virtual space of a banquet, a petit salon and an outdoor terrace, respectively through digital design. ‘A’ that is working on a novel titled “The Five Caretakers ” crisscrosses the roles of a writer & a

살인현장인 경우가 많다. 건축을 전공했던 김희천은 디지털 설계를 통해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전시장과 카페, 그 둘을 잇는 중정을 각각 연회장과 파티 살롱, 야외 테라스의 가상공간과 교차시킨다. ‘다섯 명의 저택 관리인’이란 소설을 집필 중인 A는 작가와 독자, 살인자와 탐정의 역할을 오가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단서들을 추적하고 Vlog를 찍으면서 집필과정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기록한다. 공간은 실제와 가상의 시각적 언저리에 위치할 뿐만이 아니라 소설가의 문장으로 치환되면서 인지의 세계로 확장된다.

소설가이자 화자는 자신에 의해 늘어지고 뒤섞인 타임라인과 숨겨진 공간의 비밀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흔히 탐정 소설에서 작가는 궁극적으로 범인을 배신하여 독자에게 진상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 밀실의 모순으로 인해 아직 밀실 내부의 시체(세계)를 발견하기 전인 A는 심증만 가지고 있는 작가이자 동시에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독자이기 때문에 소설의 완성여부는 불투명하다. 주어진 전시장의 입구를 벗어나 별도의 좁은 통로로 진입해야 하는 두 겹으로 폐쇄된 공간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면의 밀실을 막아 선 스크린은 진실로 향하는 통로이자 그것을 가로막는 어두운 창으로 존재한다.

글의 제목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살은 다른 곳(1973)와 트린 T. 민하의 책 여기 안의 다른 곳(2010)의 제목에서 차용했다.

reader, and a murderer & a detective, traces clues to examine the truth of the incident, video-blogs it, and records the whole process in time-lapse videos. The space is posited on a visual fringe in the reality and virtuality, and is substituted with sentences of the novelist to extend into the world of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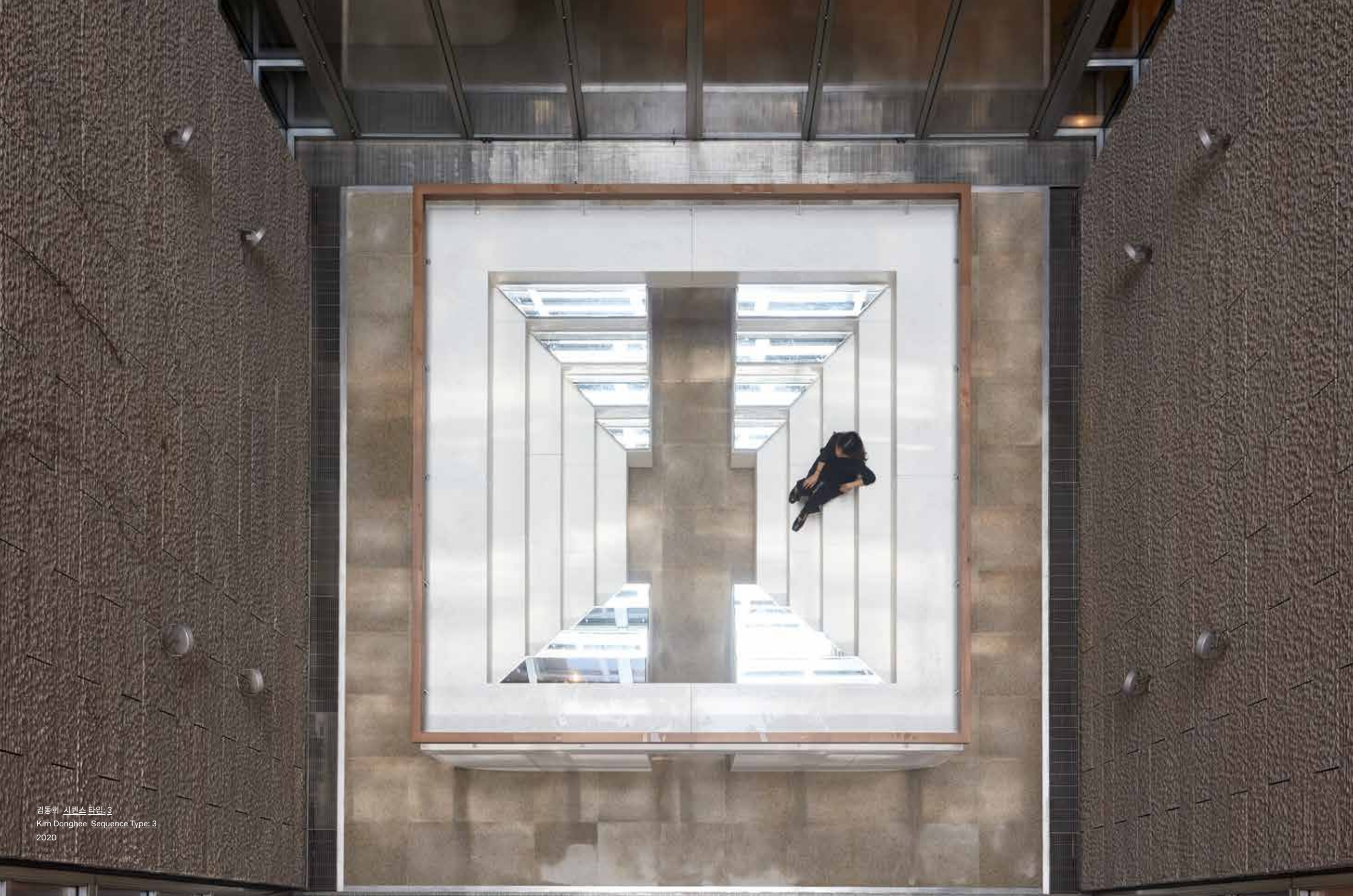
The novelist/narrator struggles to bring back the timeline loosened and mixed up by her and the secrets of a hidden space to normalcy. It is the norm for a writer in a detective novel to reveal the truth to readers by betraying the murderer at the end. Yet, ‘A’ that has not discovered the dead body(world) in the locked room due to the ironies of the room is a writer with merely some circumstantial evidence, and also a reader that has not resolved curiosity, which makes completion of the novel uncertain. The screen blocking the locked room beyond what exists in a closed room where one has to be away from the gallery entrance and enter a separate narrow passageway exists a path towards the truth and a dark window that blocks it.

The title of this writing is appropriated from Life is Elsewhere (1973), a novel by Milan Kundera and Elsewhere, Within Here (2010), a book by Trinh T. Minh-ha.



김동희
시퀀스 타입: 3
Kim Donghee
Sequence Type: 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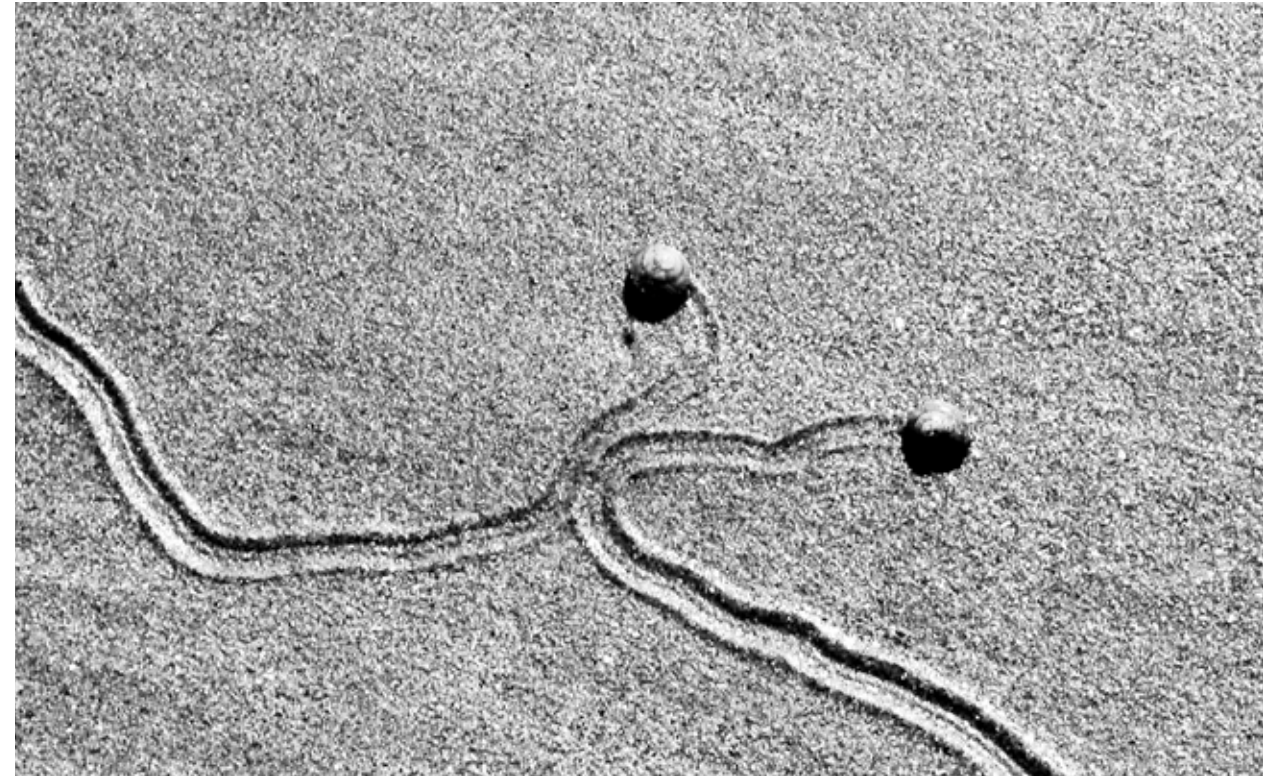




손광주 가위 바위 보
Son Kwangju Rock Scissors Paper
2020



손광주 가위 바위 보, 스틸 사진
 Son Kwangju Rock Scissors Paper, still images





조재영 허공의 단면들
Cho Jaiyoung
The Cross Sections of the Void
2020



조재영 허공의 단면들
Cho Jaiyoung
The Cross Sections of the Void
2020



아틀리에 에르메스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at Atelier Hermès



노상호 Noh Sangho
THE GREAT CHAPBOOK3—ELSEWHERE
 130 x 324 cm, 2020



디테일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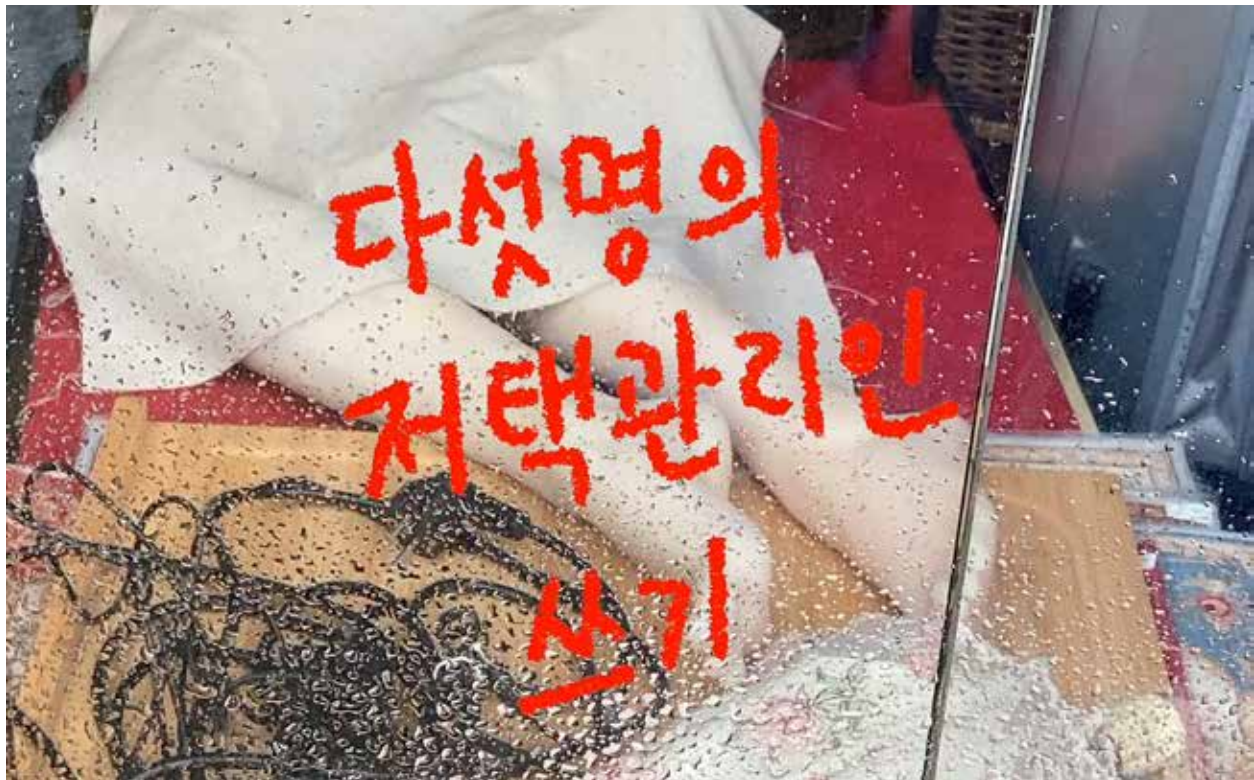


노상호 Noh Sangho
THE GREAT CHAPBOOK3—ELSEWHERE
 130 x 162 cm, 80 x 188 x 70 (h) cm, 2020





김희천 '다섯 명의 저택관리인' 쓰기
Kim Heecheon Writing 'The Five Caretakers'
2020



김희천 '다섯 명의 저택관리인' 쓰기, 스틸 사진
 Kim Heecheon Writing 'The Five Caretakers', still images





김희천 '다섯 명의 저택관리인' 쓰기
Kim Heecheon
Writing 'The Five Caretakers'
2020

김동희

20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석사 졸업
2012 홍익대학교 판화과 졸업

개인전

2019 Pr,op, Pr,op, 서울
2017 3 volumes, 시청각, 서울
2014 나열된 계층의 집,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44-3번지
공터, 창전동 3-71번지 주차장, 와우고가차도 밑 공터,
서교예술실험센터 비상계단, 프리홈 프로젝트, 서울
2011 프리홈 프로젝트, 프리홈,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하나의 사건, 서울시립미술관
+ 홀(Hall), 시청각 랩, 서울
+ Cream, 아카이브봄, 서울
+ 네 아니오 좋아요 싫어요 사랑 혐오 댓글 공요,
Superellipse Gallery, 서울
2019 호텔사회, 문화역서울284
+ I Wish I Had a Friend Like Me, 세화미술관, 서울
2018 How Many Steps, 금천예술공장, 서울
+ 가공할 헛소리, 네이버파트너스퀘어, 광주
+ 폴리곤 플래시 OBT, 인사미술공간, 서울
+ 유령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7 무빙 / 이미지,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6 December, 시청각, 서울
2015 굿-즈 2015, 세종문화회관, 서울
+ 페스티벌284: 미친광장, 문화역서울284
+ 뉴스킨: 본뜨고 연결하기, 일민미술관, 서울
+ 던전 / CC101, 공간사일삼, 개방회로, 서울
+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혼자 사는 법, 커먼센터, 서울
2014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Kim Donghee

2020 MF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2012 BFA, Hong Ik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9 Pr,op, Pr,op, Seoul
2017 3 Volumes, AVP, Seoul
2014 House of Dispersed Layers, Vacant Space 344-3
Seogyo-dong, Garage 3-71 Changjeon-dong, Under
Wow Bridge, Emergency stairs Art Space Seogyo,
Free Home Project, Seoul
2011 Free Home Project, Free Hom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This Event, AVP Lab, Seoul
+ Hall, AVP Lab, Seoul
+ Cream, Archive Bomm, Seoul
+ YNLDLHRS, Superellipse Gallery, Seoul
2019 Hotel Express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 I Wish I Had a Friend Like Me, Sehwa Museum of
Art, Seoul
2018 How Many Steps, Seoul Art Space Geumcheon
+ Monstrous Moonshine, Naver Partner Square,
Gwangju
+ Polygon Flash OBT, Insa Art Space, Seoul
+ Phantom Arm, SeMA Buk-Seoul Museum of Art
+ Point Counter Point, Art Sonje Center, Seoul
2017 Moving / Image, Arko Art Center, Seoul
2016 December, AVP, Seoul
2015 Goods 2015, Sejong Center, Seoul
+ Festival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 New Skin: Modeling and Attaching, Ilmin Museum
of Art, Seoul
+ Dungeons / CC101, Space Four One Three, Open
Circuit, Seoul
+ INTRO, MMCA, Seoul
+ A Loner's Guide, Common Center, Seoul
2014 Gwangju Biennale 2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Sweet Dew, Gwangju Museum of Art

2015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졸업

개인전

2019 탱크,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8 Lifting Barbells, 아시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 김희천, 두산갤러리 뉴욕
 2017 홀, 두산갤러리, 서울
 2016 렐리, 커먼센터, 서울

주요 단체전

2020 연대의 홀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 Three Rooms: Edge of Now, ZKM, 카를스루에
 + The Center Will Not Hold, MCAD 마닐라
 +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제 13회 카이로 비엔날레, 아이샤 파미 궁
 2018 Three Rooms: Edge of Now, 크로노스 아트센터, 상하이
 + 균열 프: 세상을 보는 눈/ 영원을 향한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비엔날레홀, 광주
 + 현재의 가장자리,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동시적순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7 제15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A Good Neighbour, 이스탄불 현대미술관, 터키
 +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아폴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6 iwillmedievalfutureyou5, 쿤스탈 오르후스, 덴마크
 + 보이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 유명한 무명, 국제갤러리, 서울
 2015 뉴스킨: 본뜨고 연결하기, 일민미술관, 서울

스크리닝

2020 Out of Blueprints, Serpentine Galleries & Nowness (온라인)
 2019 Every Smooth Thing through Mesher, 제네바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2018 V-Chanel No.2, Very, 베를린
 2017 Being Infrastructural, 마더스 탱크스테이션 리미티드, 더블린

2015 B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Solo Exhibitions

2019 Deep in the Forking Tanks, Art Sonje Center, Seoul
 2018 Lifting Barbells, 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 Kim Heecheon, Doosan Gallery, New York
 2017 Home, Doosan Gallery, Seoul
 2015 Wall Rally Drill, Common Center,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Solidarity Spores, ACC, Gwangju
 2019 Three Rooms: Edge of Now, ZKM, Karlsruhe
 + The Center Will Not Hold,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Design, Manila
 + The Square: Art and Society 1900-2019, MMCA, Seoul
 + 13th Cairo Biennale, Aisha Fahmy Palace
 2018 Three Rooms: Edge of Now, CAC, Shanghai
 + Cracks in the Concrete II: A Glimpse into the World, MMCA, Gwacheon
 + 12th Gwangju Biennale: Imagined Borders, Gwangju Biennale Hall
 + Edge of Now,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 Collection Highlights: Synchronic Moments, MMCA, Gwacheon
 2017 15th Istanbul Biennial: A Good Neighbour, Istanbul Modern
 + O philoi, oudeis philos, Atelier Hermès, Seoul
 2016 iwillmedievalfutureyou5, Kunsthal Aarhus
 + Void, MMCA, Seoul
 + SeMA Biennale Media City Seoul 2016, Seoul Museum of Art
 + Wellknown Unknown, Kukje Gallery, Seoul
 2015 New Skin : Modeling and Attaching, Ilmin Museum of Art, Seoul

Screenings

2020 Out of Blueprints, Serpentine Galleries & Nowness (online screening)
 2019 Every Smooth Thing through Mesher, Centre d'Art Contemporain Genève, Geneva
 2018 V-Chanel No.2, Very, Berlin
 2017 Being Infrastructural, Mother's Tankstation Limited, Dublin

2013 홍익대학교 판화과 졸업

개인전

2018 The Great Chapbook2, 아라리오뮤지엄인스테이지, 서울
 2017 Magic Wand, 송은아트큐브, 서울
 2016 The Great Chapbook, 웨스트웨어하우스, 서울
 + Daily Fiction-Tracing, 스튜디오 콘크리트, 서울
 2015 네쌍둥이, 기고자, 서울
 2012 프리홈프로젝트 XX 네모난, 프리홈, 서울

주요 단체전

2018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 플립북: 해저여행기담—상태업데이트, 일민미술관, 서울
 2017 B컷 드로잉, 금호미술관, 서울
 + 총과 사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제 5회 아마도 애뉴얼날레—목하진행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2016 직관의 풍경,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 서사의 간극,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 Concept:ZERO, 헝가리 한국문화원, 부다페스트
 + 구사구용-난지 9거리뷰전, 서울 시립 북서울 미술관
 2015 /documents, 시청각, 서울
 +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 시립 미술관 남서울분관
 + 굿-즈 2015, 세종문화회관, 서울
 + 오늘의 살롱2015, 커먼센터, 서울
 + Short Story Long—장마, 스페이스 월링 앤 딜링, 서울
 + SeMA 난지아트쇼V 난지도밀실사건, 서울시립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2014 젊은모색20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목하 진행 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 나열된 계층의 집—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프로젝트, 주차장, 서울
 2013 마르헨 마차 프로젝트—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소액다컴선정프로젝트, 홍대일대, 서울
 + 제로사인, 홍익대학교 박물관, 서울

2013 BFA, Hongik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8 The Great Chapbook2,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2017 Magic Wand, SongEun Artcube, Seoul
 2016 The Great Chapbook, West Warehouse, Seoul
 + Daily Fiction-Tracing, Studio Concrete, Seoul
 2015 Quadruplets, Kigoja, Seoul
 2012 Freehomeproject XX NEMONAN, Freehom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Summer Love, SongEun Art Space, Seoul
 + Flip Book: Special Exhibition: #An Anecdote of Submarine Journey—StatusUpdate, Ilmin Museum of Art, Seoul
 2017 B-Cut Drawing, Kumho Museum, Seoul
 + Layer and Spaces, MMCA, Gwacheon
 + 5th Now, Ongoing, Amado Art Space, Seoul
 2016 Intuitive Landscape, Seoul
 + A Gap of Episodes, Seoul
 + Concept:ZERO, Korea Cultural Center, Budapest
 + Experiment Expression—SeMA Nanji 9th Review, SeMA Buk-Seoul Museum
 2015 /documents, Audio Visual Pavilion, Seoul
 + Evolved Museum: the Fomer Beigian Consulate, SeMA Nam-Seoul Living Art Museum
 + Goods 2015, Sejong center, Seoul
 + Today's Salon 2015, Commoncenter, Seoul
 + Short Story Long, Space Willin n Dealing, Seoul
 + SeMA Nanji Art Show V, The Sealed Room Incident of Nanjido, SeMA Nanji Residency, Seoul
 2014 Young Korean Artists 2014, MMCA, Gwacheon
 + Now, Ongoing, Amado Art Space, Seoul
 + House of Dispersed Layers, Garage, Seoul
 2013 Machen Car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eoul Art Space Seogyo, Hongik University Area, Seoul
 + Zero Sign, Museum of Hongik University, Seoul

2003	시카고 예술 대학교 필름·비디오·뉴미디어 석사 졸업
1995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졸업
1993	연세대학교 주생활학(현, 실내건축학) 졸업
개인전	
2018	<u>망명토끼</u> , JCC아트센터, 서울
+	<u>거울없는 방</u> , SeMA 벙커 역사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스크리닝	
2019	<u>생생화화:흠어진 생각, 조합된 경험</u> , 단원미술관, 안산
+	<u>샤르자 필름 플랫폼</u>
2018	<u>Video Landscape</u> , 토탈미술관, 서울
+	<u>디어시네마4</u> , 국립현대미술관 필름&비디오, 서울
2017	<u>Rencontres Internationales</u> , 파리/베를린
2016	<u>관계적 시간/Emerging Other</u> ,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5	<u>Swatch Faces 2015</u> , 베니스
2012	에테보리 국제영화제
2011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 전주국제영화제 / 뉴호라이즌 국제영화제(브로츠와프)
2009	밴쿠버 국제영화제 / Visions du Reel 국제영화제(니온)
2008	<u>Beyond Paradise: Performing Images in a Post-Tourism Time</u> , SMBA, 암스테르담
2007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전주국제영화제 /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2006	<u>Shared History/Decolonising the Image</u> , W139; Arti & Amicitiae, 암스테르담
2005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독일) /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 이미지포럼: 한국 독립 시네마 2005 (도쿄) / 드라마 국제단편영화제 (그리스)
2004	Images Festival(토론토) / 부산국제영화제
2003	부산국제영화제

2003	MFA,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1995	MS, POSTECH, Pohang
1993	BS, Yonsei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8	<u>The Hare In Exile</u> , JCC Art Center, Seoul
+	<u>A Room Without Mirrors</u> , SeMA Bunker Historic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d Screenings	
2019	<u>Scattered Thoughts/Combined Experiences</u> , Danwon Art Museum, Ansan
+	Sharjah Film Platform
2018	<u>Video Landscape</u>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	<u>Dear Cinema 4</u> , MMCA Seoul Film&Video
2017	Rencontres Internationales (Paris/Berlin)
2016	<u>Emerging Other</u> , Arko Art Center, Seoul
2015	<u>Swatch Faces 2015</u> , Venice Biennale
2012	Götebor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1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New Horizon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rocław)
2009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Visions du Ree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yon)
2008	<u>Beyond Paradise: Performing Images In A Post-Tourism Time</u> , SMBA, Amsterdam
2007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festival Amsterdam /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2006	<u>Shared History/Decolonising the Image</u> , W139; Arti & Amicitie, Amsterdam
2005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Germany) /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 Image Forum Festival (Tokyo) / Dram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Greece)
2004	Images Festival, Toronto /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03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	위트레흐트 예술 학교 순수 미술 전공 석사 졸업
2007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2003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7	<u>Under the Paradise</u> , 파라다이스 ZIP, 서울
2016	<u>Don't Know</u> , 금호미술관, 서울
2014	<u>U에 대한 A의 차집합</u> ,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주요 단체전	
2019	<u>기하학, 단순함 너머</u> , 뮤지움 산, 원주
+	<u>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u> , 금호미술관, 서울
2018	<u>뉴바우하우스</u> ,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u>한강건축상상전</u> , 문화비축기지, 서울
+	<u>플랫랜드</u> , 금호미술관, 서울
2017	<u>매체연구: 긴장과 이완</u> , 대구미술관, 대구
+	<u>DCW '사물들: 조각적 시도'</u> , 두산갤러리, 서울
2016	<u>난지리뷰전 '구사구용'</u>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5	<u>APMAP Yongin 'Researcher's Way'</u> ,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용인
2014	<u>화이트 스펙트럼</u> , 수원미술전시관
+	<u>여가의 기술</u> , 문화역 서울 284
2013	<u>신진기예: Up and Comers</u> , 토탈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16-18	금천예술공장, 서울문화재단
2015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2013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펠로십	
2020	예술창작지원, 서울문화재단
2017	파라다이스 Zip Up, 파라다이스문화재단
+	예술창작지원, 서울문화재단
2015	금호영아티스트, 금호미술관
2013	쿤스트독 갤러리 전시작가, 쿤스트독
2009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2008	송은 갤러리 전시지원, 송은 문화재단

2012	MA in Fine Art, Utrecht School of the Arts
2007	MFA in Sculptur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3	BFA in Sculpture, Ewha Womans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7	<u>Under the Paradise</u> , Paradise Zip, Seoul
2016	<u>Don't Know</u> , Kumho Museum of Art, Seoul
2014	<u>The Relative Complement of A in U</u> , Gallery KunstDoc,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u>Geometry, Beyond Simplicity</u> , Museum San, Wonju
+	<u>Kumho Young Artist: The 69 Times of Sunrise</u> , Kumho Museum of Art, Seoul
2018	<u>New Bauhaus</u> , Daegu Art Factory
+	<u>Han River Architecture Imagination</u> , Oil Tank Culture Park, Seoul
+	<u>Flatland</u> , Kumho Museum of Art, Seoul
2017	<u>Media Study: Tension and Relaxation</u> , Daegu Art Museum
+	<u>DCW 'Things: Sculptural Practice'</u> , Doosan Gallery, Seoul
2016	<u>SeMA Nanji 9th Review 'Experiment Expression'</u> , Buk Seoul Museum of Art
2015	<u>APMAP Yongin 'Researcher's Way'</u> , Amorepacific Museum of Art, Yongin
2014	<u>White Spectrum</u> , Suwon Art Center
+	<u>How To Enjoy Your Free Time. One Day. Nicely</u> , Culture Station Seoul 284
2013	<u>Up and Comers</u>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Residency	
2016-18	Seoul Art Space Gue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5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2013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Fellowship	
2020	Art Creation Support,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17	Paradise Zip Up, Paradise Culture Foundation
+	Art Creation Support,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15	Kumho Young Artist, Kumho Museum of Art
2013	Gallery KunstDoc Artist, KunstDoc
2009	SeMA Young Artist Exhibition Supporting Program, Seoul Museum of Art
2008	Songeun Gallery Young Artist,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정의한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창작활동 및 예술,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9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아닉 드 쇼낙이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acebook | FondationentrepriseHermès
Instagram | fondationhermes
#FondationHermè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Annick de Chaunac
Head of Communications: Sacha Gueugnier
Head of Projects: Julie Arnaud
Communications Manager: Maxime Gasnier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Cho Soo Min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함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7
T. 02 3015 3248
F. 02 545 1224

월요일-화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목요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일요일 · 공휴일 오후 12시-오후 7시
수요일 휴관

maison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è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Ahn Soyeon
Graphic Designer: Sulki & Min
Scenographer: Pic Construction
Translator: Choi Kiwon
Exhibition Photographer: Kim Sangtae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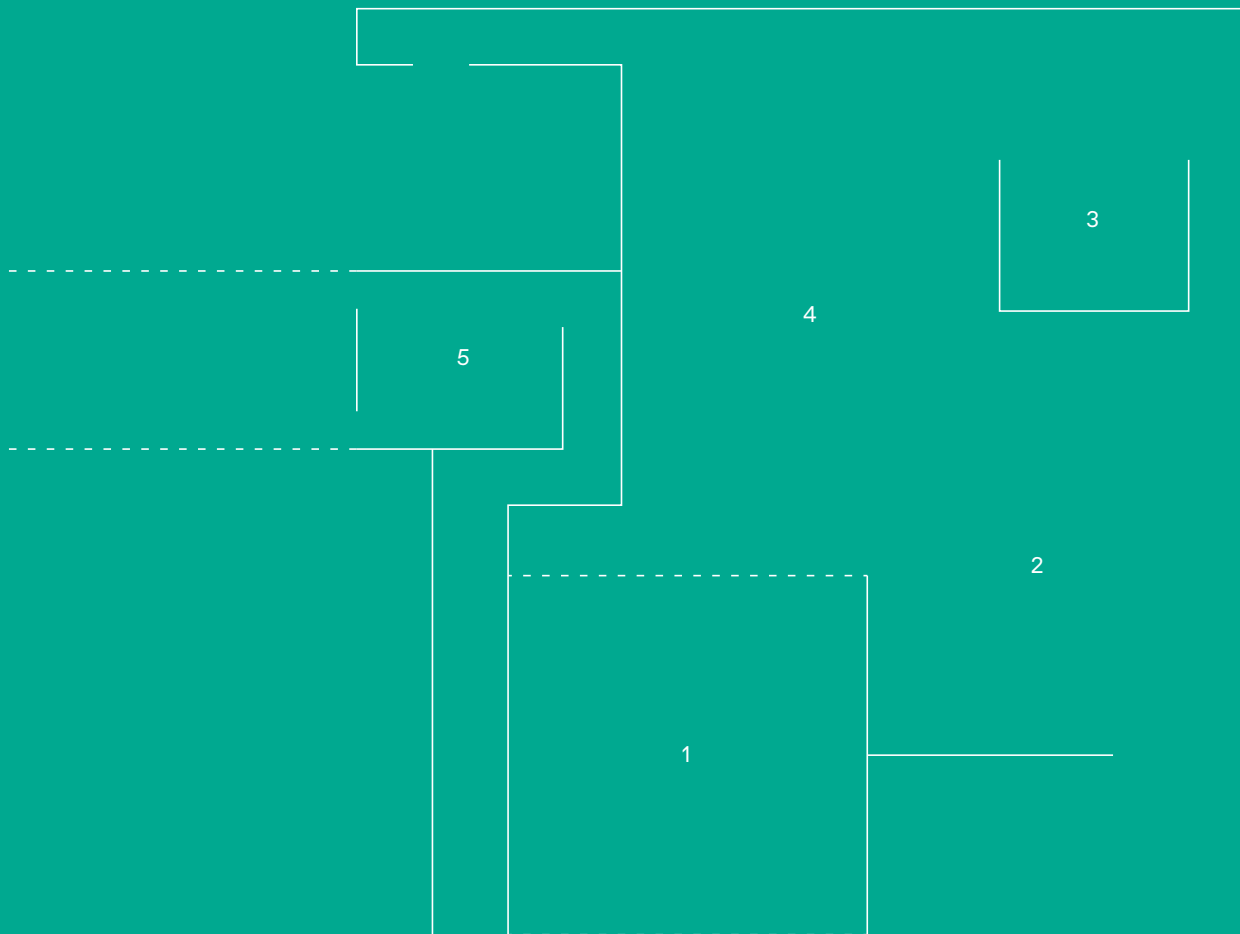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and Tokyo.

Masi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02 3015 3248
F. 02 545 1224

Monday to Tuesday 11am-7pm
Thursday to Saturday 11am-7pm
Sunday & Public Holiday 12pm-7pm
Closed on Wednesdays



1

김동희

시퀀스 타입: 3

합판, 방수 도장, 스테인리스
스틸, 인테리어 필름, 실리콘

450 × 450 × 220 cm

2020

2

조재영

허공의 단면들

판지, 접착지, 철제 프레임,

가변 크기

2020

3

손광주

가위 바위 보

싱글채널 비디오, 9분

2020

4

노상호

THE GREAT CHAPBOOK3—

ELSEWHERE

회화,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0

5

김희천

‘다섯 명의 저택관리인’ 쓰기

싱글채널 비디오, 00분

2020

1

Kim Donghee

Sequence Type: 3

plywood, waterproof coat-
ing, stainless steel, interior
film, silicone

450 × 450 × 220 cm

2020

2

Cho Jaiyoung

The Cross Sections
of the Void

cardboard, contact paper,
metal frame, dimensions
variable

2020

3

Son Kwangju

Rock Scissors Paper

single channel video, 9 min
2020

4

Noh Sangho

THE GREAT CHAPBOOK3—
ELSEWHERE

paintings,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20

5

Kim Heecheon

Writing ‘The Five
Caretakers’

single channel video, 00 min
2020